

모두 발언

2024. 8. 8. (목) 09:35

금융투자협회(23F)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님과

자산운용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민국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님과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업계의

역할과 책임에 거는 기대도 큰 만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최근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및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과

벨류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리포터」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Ⅲ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입니다.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주주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V 당부사항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주체로서

투자자의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운용사 CEO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 역시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CEO 여러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文化)’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8월과 9월 중에는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더 늦기 전에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산운용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도 건설적인 의견이 개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